

익산 전통시장서 설 장보기 행사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최대 35% · 전통시장서 성수용품 소득공제 40% 혜택

익산 서동시장 수산물, 북부·익산장 농축산물 구입 시... 최대 4만원 환급 등

익산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과 다이로움을 활용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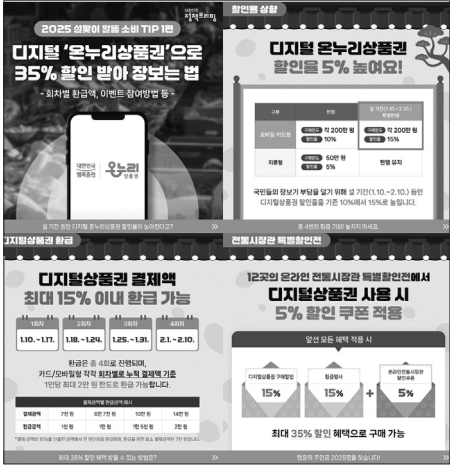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최대 35% 혜택을 제공하는 명절 장보기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익산 일부 재래시장에서 오는 23~27일 닷새간 집중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환급해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됐다. 물품 구입액의 15%(최대 2만원)를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 쿠폰을 받는 등 최대 35%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익산시가 준비한 특별한 혜택도 더해진다. 오는 23~27일 서동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북부·익산장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 별로 30%(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각 시장에서 6만 7,000원 이상을 구입하면 상품권 2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환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매 당일 영수증에 한정된다. 서동시장은 상인회 사무실 앞 1층 광장점, 북부·익산장은 중앙노점 서울떡집 앞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현장에서 바로 상품권 증정이 이뤄진다.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지 않는 매장에서는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면 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을 구매할 시 무작위 자동 추첨을 통해 500명에

게 1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사상 초유의 국비 삭감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이로움 발행 목표를 도내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충전시 10% 혜택을 연간 720만 원 한도로 꾸준히 유지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서점 29개소와 착한가격업소 33개소, 청년몰 입점 13개소, 글로벌문화관 입점 3

개소, 중앙동 치킨로드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이로움 10% 추가 할인 혜택도 이어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과 다이로움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할인·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활기찬 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설 명절 대비 종합대책 차질 없이 추진”

강임준 군산시장, 정례회의서 민생 의제 최우선 당부

강임준 군산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소비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20일 정례회의에서 ‘지역 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적극 지원, 명절 시민 안전’을 화두에 올리며 경제침체와 국정 혼란 속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에게는 ‘민생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장 행정에 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군산시는 설 연휴 120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민생경제, 민원대응, 안전, 보건복지, 농수산분야로 세부화해 마련한 설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



시민

이다.

아울러 연휴 기간 운영되는 병·의원, 약국 및 주요 음식점 정보 등 시민들과 밀접한 정보는 군산시 대표 사회관계망인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나서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 수립... 4대 전략·14개 과제 설정

익산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4대 중점전략과 1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중점전략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운영 △피해아동 회복·사후관리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다.

우선 익산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신고 체계를 갖추고,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의심 현장에 출동해 피해 아동 응급·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피해아동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확대피해 위기아동 20가정에 긴급지원

과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과 익산병원을 통해 신속한 진료와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아동과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고위험 아동 가정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부속종합사회복지관과 추진하는 ‘한 아이와 부모를 위한 온 마을’ 사업은 가정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분기별로 아동 600여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생활밀착형 예방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군산시가 시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480동 이상의 가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축사와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 이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주택에 한해 지원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원광보건대, 하이브 사업 성과 공유회

비수도권 유일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국비 3억3800만원 획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로 교육-취업-정주 모델 발전 기대

익산시가 원광보건대학교와 함께 추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을 마무리하며 20일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이브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라이즈)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과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 김원오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교육생과 하이브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2022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하이브 사업에 선정돼 원광보건대학교와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3년 동안 58억 7,600만 원을 투입해 특화분야 인력 양성,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요 추진 성과로 그린바이오식품과 돌봄서비스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41건, 특화 교과목 운영 305건, 평생직업교육 67개 과정, 학습공동체 12팀 운영 등 창년 인재 양성과 시민들의 인생 2막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체, 기관·단체와 협력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구도심 활성화와 아이디어 팩토리 거리조성, 부모교육 플랫폼 활용 아동돌봄 지원 등을 추진했다.

특히, 익산시-원광보건대는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비수도권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연차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으며, 성과급으로 국비 3억 3,800만 원을 획득한 바 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에서 하이브 사업의 성과를 지속해서 확산하고 교육-취업-정주 모델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익산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백준흠 총장은 “3년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익산시와 지역사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이브 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향후 라이즈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원광보건대학교와 협력해 이룬 성과는 지역 교육과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다”며 “특히 3년 연속 최우수 달성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탄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 위대한 도시 익산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군경합동모지 명칭

변경 선호도 조사 실시

군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시군경합동모지 명칭 변경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주간 군경합동모지 명칭 변경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330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선호도 조사 대상은 중복이름 등을 제외한 195건이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군산시 누리집 등에 안내된 응모페이지(구글폼)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석기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 안장묘역인 군경합동묘지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자 선호도 조사를 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 20여건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2월 말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위한 시민 의식조사 진행

군산시가 새해 들어 군산시 경관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군산시 경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등 계획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군산시 경관에 대한 만족도 △군산시 대표경관자원 △긍정적·부정적 경관 △개선이 필요한 경관 △군산시 대표 도시이미지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다.

조사 기간은 군산시민과 군산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참여 방법은 군산시 누리집 팝업 배너를 통해 연동된 설문조사에 응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설문 참여가 어렵다면 군산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시정소식에서 설문지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